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수요 강단 - 요나

##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

(은 2:1-10)

요나서의 전체주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1:17에 '이미'와 '예비하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기로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아시고 그 대책들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요나서 어디서든지 나타납니다.

### 1.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요나가 어떤 배경에서 자랐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낱알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므로 우리의 성장과정,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눈물,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분의 면전에서 사는 것이 바로 코람 데오의 신앙입니다.

### 2.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시므로 바다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파도가 뛰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요나에게 뽑힌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도, 바다에 빠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삼키고 싶은 물고기의 성향을 조성하신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요나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아무리 눈물겹고, 아픈 것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에게 한 줄기 찬란한 소망의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신 궁극적인 목표는 사망의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위한 절망이 아니며,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이며 하나님의 훈련인 것입니다.

### 3. 요나의 기도

요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편재하심, 그리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들, 심지어는 풍랑과 모든 일기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 문제를 책임지기로 합니다.

요나는 이제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심령을 쏟아 기도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였다”고 하였고 주께서 들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깊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자신의 사명도 회복하였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은 고통이었고 절망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변화의 자리였고 기도의 자리였으며 구원과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고,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 앞에 큰 풍랑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통해 다시 기회를 얻게 된 요나를 기억하시면서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Jonah's Prayer in the Belly of a Fish

(Jon. 2:1-10)



박도철 목사

The totality of the book of Jonah is God's 'absolutism.' The God who asserts life and death, and the fortune and misfortune of history and mankind is the core message of the Book of Jonah. In 1:17, we see the words 'already' and 'provided'. Jonah disobeyed the Lord and decided to run away from Him, but God 'already' knew this fact and 'provided' a plan. In this way, God's sovereign work appeared in the book of Jonah and everywhere else in the Bible.

### 1. The omniscient God

When this happened, God already knew everything in detail, "In what background he was raised, what he had in mind, what plan he had, and where he was going." God knows us more than we know ourselves. He knows how we will progress with all of our hurts and tears in the process, as well as our past, present, and future. When we stand before the Lord like this, we realize that we cannot run away from the Lord. The faith with which we live before Him is Coram Deo.

### 2. The omnipotent God

By God's command, the wind of the sea started blowing, and the waves began to roll. God planned that all sailors would cast lots and that the lot would fall on Jonah. He also provided the large fish, and made Jonah to be thrown into the sea so that he would be swallowed into the belly of the fish. He even established the fish's disposition to swallow Jonah. He did all these things by Himself.

This is grace. If all of these things were started by God, then there is still hope for us. No matter how painstaking our situation, no matter how painful our sufferings, trials, and adversity, if everything starts with God, is there not a light of brilliant hope for us? This is because the ultimate goal for which God disciplines us is not the judgement of death. It is not despair for despair's sake, and it is not suffering for suffering's sake. But rather, it is a whip of love that works in us to make us become a more glorious instrument for God.

### 3. The prayer of Jonah

Jonah realized too late that it was God who is absolute and omnipresent, who watches over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as well as Israel, and even the storm and weather. Therefore, he was thrown into the water and responsible for his own trouble.

So now Jonah was praying to God because his life was at risk. God purposed that Jonah would look to Him and pour out his soul, so He allowed him to undergo this suffering. Jonah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confessed that God had listened to his cry. Jonah was able to recover his relationship with God through this deep prayer, and regain his mission. His three days inside the fish was a time of suffering, despair, and death. However, it was also the environment for change and prayer, as well as salvation and victory.

### My beloved Christians!

If we lose the joy of our salvation, and live our lives forgetting to be thankful to God, God will provide a great storm and large fish to bring us back to these things.

As we stand before God, and as we pray in those life-threatening moments, remembering Jonah who gained another chance,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ho stand in the midst of failure and suffering will be God's people, looking to Him, praying to Him, and succeeding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2011년 섬김위원 추가임명

### <예배위원회>

-안내위원회-

- 주일1부: 이희완 한효숙 · 주일2부: 황현숙
- 주일3부: 최현철1 김영아 박은진 김두현1 · 찬양예배: 서창원
- 헌금위원회-
- 주일1부: 남순덕 안경옥
- 주일2부: 이인보 김복순 박경정 이화정

### <찬양위원회>

- 가브리엘 찬양대: 김연진1 김소연 장희선 이대환
- 할렐루야 찬양대: 김소현1 김진현3 박나에 최 인 유동현 김익환  
임지원 이원석2 천성은
- 임마누엘 찬양대: 김나경 김복희 김혜연 김희정6 방은주 서명희2 신미  
영 안미영1 이한나1 이해연2 임아름 김영진 김정수6 천정운
- 베들레헴 찬양대: 차장 서경화, 김광옥 김승직 이규창 강재훈 신재규
- 예루살렘 찬양대: 김명옥 김진희1 소성연 Egan Rebecca  
Madeline Martin 이동은 주현진
- 은빛 찬양대: 김영주 김철문
- 갈렐 찬양대: 송미라 윤숙희
-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안해민 장상국
- 아멘 관현악단: 김신영 송지혜3 신혜진2 임병현 최명아 김대웅4  
김소연8 김아름2 박은송 배현근

### <교육위원회>

- 유아부: 우스라
- 유치부: 김수양1 백준모 안인선 이승호2 진민선
- 유년부: 김 휘 박예담 차주호
- 초등부: 김진안 박유란 신원열1 양혜선 유원모 윤현미 한성재
- 어린이찬양예배: 김상운 임연주 장수정
- 어린이수요예배: 박은주1
- 중등부: 이은희7 · -고등부: 신현창 임형빈 최복희

- 대학부: 정철용1 · -영어예배부: 부장 임흥수, 차장 장경원
- 사랑부: 양세현 오종원 · -새가족부: 장명순
- 신앙강좌2부: 김미경3 김미성1 김웅기 신성균 안선광 유관모  
이종창 장호영 조복자 주경자

### <재정위원회>

-계수 · 2부: 손종근

### <교구위원회>

- 다락방장 / 부다락방장
- 1-6: /구희은 · 1-7: /김은정5 · 1-8: /전옥주
  - 1-9: /지서윤 · 1-13: /조선임 · 2-11: /한현숙/김인실
  - 4-8: /고영진 · 5-3: /정승주 · 5-9: /이윤영2
  - 5-13: /이희숙1 · 11-5: /김남순1 · 11-6: /박천희
  - 11-10: /전화진 · 11-14: /김영숙3/박현영
  - 12-6: /온부덕 · 12-15: /조미희
  - 12-18: /임인선 · 13-2: /윤형준 · 13-4: /김미성1
  - 13-13: /김인혜1/유혜영 · 13-17: /김희순
  - 13-21: /이영란3 · 13-25: /홍미순
  - 13-35: /주화인/선혜영 · 14-6: /손경화
  - 14-10: /한혜주 · 14-11: /이상섭
  - 15-4: /이인보 · 16-2: /최규초
  - 16-13: /유재숙/김성은5

### <순례자>

노창훈, 소원섭

### <도서실>

차장 안홍희, 유승순 김동환2 김은주3 황금선 홍미선1

### <서적부>

김현정1 여현진 오은이

## 2011년 행사 조직표

KDMCHI(행글라데시) 6.7(화)~6.16(목)		홍백작전 6.6(월)~6.25(토)		바자회 9. (목)~9. (금)		사랑자 대회 10.9(주)~11.27(주)	
위원장	박정선	참모장	조정식	위원장	최학인	본부장	하인선
차장	양순경	차장	서경화	차장	김시환	차장	최형열
기획/인클 송인길	차도훈 김명희1 이종훈 은기장 김승록 이승준 오윤걸 박종권 박옥	기획	오승민 김민철	기획	최광성 한상준	진행	이강인
의전/수송 장양일	오유식 정동화 김종철1 방효철 강승용 홍창배 김희만 박송구 김경호 이양철 정진문 이종창 유관모 오명철 양정실 박승경	예배	김광옥 예배 안내위원	재정	송인수 이만수 정경자 이은희 전정숙	홍보	서춘식
안내 손병석	박순복 및 예배안내위원	동원	임광우 이계홍 간사 전원	판매 관리	주동제 김예환 고정숙 정미연 최금숙 한인진 임광호 박광식	견도	원용규
통역 노광훈	윤갑숙 및 영어예배부			홍보/ 설의	최규초 최미아 윤석원 김성준 유은경 오주영 김은희 홍하림 고아라 박승현 이민광	기도	이희국
봉사	김예환 최미아 제1,2권사회	홍보	전교남 정처은	사실 관리	오지영 한주찬 김광룡 김제중 이승우 이승래 정인주 최임수 임낙식 윤영구 예환석 김진달 안홍희 주영도 오교식 김상태 이길재 남정열 강석조 서광원 강수남 외 제1,2,3,4대반회	교육	백승갑
음향/영상	윤요셉 벨디미디어팀 최형열 이우리 오주영	봉사	최미아 김선영1 김관진 김진희 박현영 권영길 최종희 윤용미 (최희, 루디아, 에스티, 마리아)	주차	김진환 이남성 최승환 강택근 김혜수 진승근 외 제1,2,3,4대반회	안내	이승래
재정	홍승진 이준호 박찬성 김영호 문주현 이희민					영광	홍일성
홍보	김규태 유은경 리 숙					안내	이승래
의료	노재현 안인호 정철용 나미용 및 의료선교팀	차량	이동만 피택장도전원 차량관리부원			봉사	1,2,3,4대반회 (김진환 오지영)

사순절의기도



## 십자가에 달림을 너는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내가 달린 십자가를 보았는가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고, 간음하며,  
살인하고, 강도질하던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아니었는가.

대제사장 뜰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겨우 은 삼십에 나를 팔던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아니었는가.

내 뺨을 때리고, 침을 뱉던,  
손과 발에 못 박고,  
허리에 창 찌르던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아니었는가.

너의 죄값으로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림을 너는 아느냐.

이제 내가 죽어 너를 살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려함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는 아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창조함과 같이 너를 사랑하노니  
이제 나의 사랑을 믿으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무엇으로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나이가.  
감사 또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영원토록 받으옵소서..

권오철 집사(14교구)

이중운 기독교학술원장 한국교회 진단

# “한국교회, 감동 주려면 울며 회개해야”

지난 3월 29일(화) 국민일보에 종교개혁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란 주제로 첫 학술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이중운 원로목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순례자는 이를 발췌해 실는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독일 사회 형편은 종교적이었다. 그러나 교회는 한없이 타락했다. 정치적 권력을 가졌고, 사회적 존경도 최고로 올라갔으나 가장 부패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어느 때보다 교회가 왕성하고 교인 수도 늘어나 세계 50대 교회 중 30개가 한국에 있다고 할 정도로 부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가장 개혁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것이 한국교회다.

한국기독교학술원(이하 학술원)이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란 주제로 올해 첫 학술 공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올 1월 학술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중운 원장은 “우리나라는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주님의 교회가 왕성했고, 교회는 사회와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왔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의 허물로 인해 한국교회는 세상을 책임하는 복음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칼빈이 외친 것은 교리·생활·예배 개혁이었다. 개혁은 정치적인 용어로는 혁명, 사회적인 용어로는 개혁, 신앙적인 용어로는 회개라고 했



다. 종교개혁은 회개 운동이라는 것이다.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죄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으므로 먼저 사회 진단, 교회 진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교회의 문제를 세 가지로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으며 먼저 역사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합동과 통합의 분열 원인을 말하며 합동측에서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때문에 갈라졌다고 하는데, 통합측에서는 박형용 박사 사건 때문에 갈라졌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역사를 다르게 이해해서 양 교단은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다.

“어두운 역사를 학자들이 모여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것을 정리 못하면 한국교회는 영원히 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한 장총 대표회장 재임 시 제시한 한교단 다체제를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장로교의 날 이후 장로교 한교단 다체제를 이끌어가는 이중운 원장의 말이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균열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년 전 칼빈 500주년 기념대회 때 “왜 칼빈이나 지금은 칼 바르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다. 칼빈을 별책 인정하지 않는 학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세계신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만

“  
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독교가 되려면  
한국교회가  
조기를 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

일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손을 어보라고 하면 손드는 사람이 10명도 안될 것”이라며 “지금 세계 신학이 이렇게 변했다”고 전했다. 3년 전 스웨덴에서 만난 신학교 총장은 “스웨덴에는 신약교수가 없다”며 “학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원장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누가 오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남은 그릇이기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신학적인

점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현실적·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오늘날의 예배는 엉망진창입니다. 종교개혁에서도 주장했지만 예배갱신을 해야 합니다. 지금 열린 예배를 드리면서 전 세계 교회에 예배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예배갱신과 함께 생활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했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부자입니다. 한국교회는 돈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성명서를 낸다고 될 일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모두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자리를 일어서며 이 원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한국교회의 방향을 제시했다.

“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독교가 되려면 한국교회가 조기를 달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진 글 출처 : 국민일보)



전광예 선교사

제가 파송 받은 A국은 인구 7천 2백만 여명이 살고 있는 남한의 약 8배 크기의 이슬람 국가입니다. 아시아의 끝이고 유럽의 시작인 나라로 동서고금을 간직한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99% 이상이 모슬렘인 이들은 예수를 많은 선지자들 중의 한 분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구원하러 인간으로 오셔서 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인류의 구주”로 알지 못 할 뿐만 아니라 혹은 아는 자가 있다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이 자기의 최악 뉘우침을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4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하십니다.

오늘 A국에 사는 자기 백성을 아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받아 함께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복된 사역을 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상황을 잘 알고, 둘째는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

하기를 쉬지 말고, 셋째, 현지인들이 복음에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디고 느리지만 구원받은 A국 백성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곳곳에 세워져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120여년 전 조선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A국도 반드시 우리나라와 같은 시대가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이라”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구름 떼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예배하는 자들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

☞ **만민에게 전도 - 단기선교를 앞두고**

#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

## 이강진 집사(단기선교단장)

아버지! 130년 전의 이 나라는 엄격한 신분제도 아래 양반과 천민이 차별되어 백성 같은 불가촉천민은 갖도 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부장제는 여성의 인권을 경시하여 대낮에도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는 자를 흔히 볼 수 있었고 축첩제는 정실과 첩, 적자와 서자의 차별을 만들어 가족 간의 평등과 화평을 파괴하였고, 제도적 질곡을 차치하고라도 극한 가난으로 거리엔 걸인과 주정꾼이 다반사요 염병이 돌 때면 주민 태반이 죽어나가는 게 일쑤였습니다.

아버지! 사망의 질은 그림자로 덮이고 사탄의 차꼬에 매여 있던 이 땅에 어찌 이리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요. 죽음의 빛장을 부활의 철장으로 신산이 부수신 주 예수께서 복음의 횃불로 진리를 밝히고 자유하게 하셨나이다. 한 나라가 어찌 이리도 빨리 변할 수 있는지 이 눈에 신기하고 온 세계가 놀라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턴, 마펫, 무어 등 수많은 선교사가 흘린 피눈물의 희생이 가슴을 후비는 칼이 되고 머리를 쇠라케 하는 골수가 되어,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주의 성호를 불렀나이다. 복음에 빛진 이 땅이 선교사 오천 명을 파송할 때 일인 소득 오천불이 되고 만 명을 파송할 때 만불이 되었고 이제 이만 명을 파송하니 이만불이 되었나

이다.

아버지! 땅글 나라 방글라데시, 거기가 옛날 조선 땅과 같사오니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소서! 울부짖는 사자들 가운데 순환 양들처럼, 그러나 억제할 수 없는 예수의 끓는 심장으로 일하는 조남혜, 박진영·김미성, 스브로토 바로이 선교사들에게 해처럼 힘찬 능력의 빛을 비취주시고,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단기선교단이 저 선교사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하시며, 예수 십자가 남은 고난의 편린이나 마 만질 수 있게 하소서. 모든 단원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자기를 잊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 그 얼굴 빛이 예수의 형상 되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오직 땅끝까지 하나님을 알리고 우리 주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것임을 심비(心碑)에 새기게 하옵



소서. 전능하신 주 앞에 우리가 할 일이 기도 외에 무엇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을 마치고 오직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며 모든 영광 주께 돌릴 수 있게 하소서.

모든 과정이 형통하고 효력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가브리엘찬양대 솔로이스트 김남희 성도와 김정은 성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현재 서울 아레나오페라단 대표인 김남희 성도는 주계예수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베로나 국립음악원과 파르마 오르페오 아카데미를 졸업하였으며, 김정은 성도(서울 기독교대학교 음악학과 교수)는 숙명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이태리 베네치아 국립음악원과 프랑스 파리 음악원에서 성악을 전공하였다. 오늘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나운영)' 외 두곡을 윤 경 성도(가브리엘찬양대원)의 반주로 찬양 드린다.

## 등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4월 3일(주) 신반포중앙교회(김성봉 목사)에서 설교한다. 4월 7일(목) 한국장로교육원 명예이사장, 이사장, 원장 취임예배에서 설교한다. 4월 8일(금)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 총회장단 모임에서 설교한다.

■ 주간식당봉사: 뫼비전도회(4.3) 마리아전도회(4.10)  
 ■ 금주의 식사제공: 11교구 오치열 집사 하숙 권사 가정(개업을 감사드리며) 교회제공



## 제1회 의료인의 밤

- 4월 30일(토) -

제1회 의료인의 밤 행사가 4월 30일(토) 본 교회에서 열린다. 지난 의료선교 사역을 결산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며 박노철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의료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다. 대상은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의대 및 간호대 재학생, 의료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다. 관계된 성도들은 이 뜻깊은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드리기 바란다.



2009년 캄보디아 단기선교에서 현지인들을 치료 중인 의료선교단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2. 일본지진난민들을 돕는 우리 교회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3. 김치세미나(KIMCHI SEMINAR)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4. 독도영유권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